

제주도의 중요성 : 동북아 해양거점으로서의 제주도

류 권 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머한의 해양세력이론(Sea Power Theory) |
| II. 고대 역사 | V. 결론 |
| III. 몽골 시대 | <참고문헌> |

< 국문 초록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라는 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재미있는 전설인 삼신인시대부터 제주도에서 농경사회가 시작했고 말과 소도 키웠으며, 외부와의 교류도 있었다. 긴 역사 과정에서 제주도는 탐라라는 국호에서 제주로 바뀌었다. 몽골인의 침입으로 의식주 등에서 큰 영향을 받았지만 도민들의 탐라정신과 따뜻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섬이지만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몇 백년전에 이미 그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미국군사평론가인 머한의 '해권이론'에서 보면 제주도는 관광지로서만이 아니고 잠재적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We all know that the Jeju Island is a beautiful sightseeing place, but it is of

* 중국 교육부에서 파견되어 현재 제주 한라대학교 디지털 콘텐츠과 재직

more significance than that. According to an interesting story—Three Gods, people on this island began to grow food, raise cattle and horses when they came here. In the long history, its name was changed from “Tamna” to Jeju”, and the Mongols had made great influence upon it. But the islanders never changed their “Tamna Spirit” and compassion. This island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Hundreds of years ago, people found its importance. Alfred Thayer Mahan, an military critic in USA, through his claim of “Sea power”, help us understand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this island.

핵심어: 제주도(Jeju island), 탐라정신(Tamna Spirit), 삼신인(Three Gods), 동북아중심지(The center of Northeast Asia), 해양 세력(Sea power)

I. 서 론

한국의 제일 큰 섬인 제주도는 그 아름다운 경치로 세계7대 경관에 선정되었다. 이 아름다운 섬은 풍경뿐만 아니라 독특한 역사와 문화도 있고 긴 역사 중에 독립적인 왕국도 있었고 몽골 지배 시대도 있었다. 독립시거나 외족의 침입을 받을 때나 제주도의 중요한 위치와 해양적인 특성때문에 이곳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주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삼한 및 중국과 거래해 왔으며, 오늘날 제주도는 동북아시아 중심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관광업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Ⅱ항에서 고대 역사를 통해 제주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바다의 은혜때문에 제주도는 자기의 독특한 역사문화를 보유했을 수가 있고 탐라정신도 만들었다. 제Ⅲ항에는 주로 <원사>에서 “탐라”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원세조 쿠빌라이는 제주도의 해상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전방의 진지로 생각했다. 몽골사람은 제주도에서 백년동안 제주인들과 생활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당시에 이미 제주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제Ⅳ항은 머헨의 Sea Power Theory로 먼저 포르

투갈과 네덜란드의 발전을 분석하고 이런 결론을 얻는다. 즉 근대이래 모든 세계적인 강대국은 해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대국은 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큰 나라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주도의 우월한 위치와 해양 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제주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II. 고대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옛이름으로는 탐라(耽羅), 도이(島夷), 동영주(東瀛洲), 섭라(涉羅), 탐모라(耽牟羅) 등이 있고, 이들 중에 동영주(東瀛洲) 외에는 전부 다 섬나라라는 뜻이다. 영주(瀛洲)는 서한(西漢)의 동방삭(東方朔)이 쓴 <십주기> (十洲記) 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영주는 신선이 있는 곳이고 제주도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영주라고 부른 것이다. <삼국사기> (三國史記) 에서 삼신인(三神人)의 전설로 부터 시작한 제주도 역사는 중국인인 필자가 아무리 보아도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고을라(高乙那), 양을라(良乙那), 그리고 부을라(夫乙那) 삼신인은 한라산 북쪽에 있는 모흥혈(毛興穴, 오늘의 삼성혈三姓穴)에서 솟아나고 가죽을 입고 사냥하다가 동방 벽랑국(碧浪國)에서 온 세 공주와 결혼하고 오곡 종식과 소와 말을 기르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보면은 삼신인 시대는 탐라사회가 원시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전변하는 시기이고 외부와 교류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삼신인 신화에서부터 외부와의 관계에서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주고씨가전> (星主高氏家傳) 을 보면 그 이후로 고을라 후손 삼형제는 신라 법흥왕 (法興王) 때에 성주(星主), 왕자(王子), 도내(徒內) 등의 관직을 받고 탐라 (耽羅) 라는 국호도 받았다. 이씨 조선때 한치연 (韓致淵) 은 중국과 일본 역사 중에 540가지를 뽑고 <동해역사> (東海經史) 를 만들고 이 중에서 동국방언 (東國方言) 은 “도” (島) 의 발음이 “섬”, “국” (國) 의 발음이 “나라” (羅羅) 이고 “탐”, “섭”, “단” 등 다 “섬”과 발음이 비슷해서 위의 설명처럼 탐라는 섬나라의 뜻이다. 위의 역사를 보면 제주도는 신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국호와 관직명까지 신라에서 받기 때문이다.

〈고려사 태조세가〉(高麗史 太祖世家)에서 통일신라 후에 탐라는 938년에 고려 속국이 되고 1105년에 탐라군으로 바꿨다. 고려 고종시 제주(濟州), 즉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름으로 바꿨다. 제주의 제(濟)는 큰물이 건너간다는 뜻이고, 주(州)는 큰 지역의 뜻이다. 탐라에서 제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제주도가 고려의 행정구역이 된다는 것이다. 1273년 이후 탐라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땅이 되고 다루가치가 설립되고, 1274년에는 탐라군민총관부라는 기구가 각각 설립되었다. 몽골은 제주도의 기후가 좋고 목초도 좋으니까 말을 방목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몽골마(호마胡馬)와 제주 향마(乡馬)가 번식하는 것이 이때부터였다. 1294년에 원나라는 제주도를 고려에게 다시 반환했다. 다루가치는 몽골어로 진수자(鎭守者), 즉 어떤 지역을 진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거의 다 몽골 사람만 담당했다. 여기까지는 제주도의 길디긴 역사 중에 일부분뿐이고 몇 마디만 설명해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진수는 〈삼국지 동이전〉에서 첫번째로 제주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又有州胡在马韩之西海中大島上，其人差短小，言语不与韩同，皆髡头如鲜卑，但衣韦，好养牛及猪。其衣有上无下，略如裸势。乘船往来，市买韩中。”

위의 글에서 주호(州胡)는 큰 섬에서 살고, 배를 타고 한(韓), 중국과 거래한다고 하고 있다.

제주도는 근대의 영국처럼 대륙과 떨어져서 자기의 독립성과 독특한 문화를 오랫동안 향유한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제주도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삼다, 삼무”외에 삼려라고도 부르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풍경이 아니고 도민들의 마음이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인심이 사악하면 제주도는 탐라정신(耽羅精神)이 전혀 없는 것이 되고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명소도 아니게 된다.

Ⅲ. 몽골 시대

원사에서 탐라에 관하여 기술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耽羅，高麗與國也。世祖既臣服高麗，以耽羅爲南宋、日本冲要，亦注意焉。至元六年

七月，遣明威将军都统领脱脱儿、武德将军统领王国昌、武略将军副统领刘杰往视耽罗等处道路，诏高丽国王王禔选官导送。时高丽叛贼林衍者，有余党金通精通入耽罗。九年，中书省臣及枢密院臣议曰：“若先有事日本，未见其逆顺之情。恐有后辞，可先平耽罗，然后观日本后否，徐议其事。且耽罗国王尝来朝觐，今叛贼逐其主，据其城以乱，举兵讨之，义所先也。”十年正月，命经略使忻都、史枢及洪茶丘等率捕船大小百有八艘，讨耽罗贼党。六月，平之，于其地立耽罗国招讨司，屯镇边军千七百人。其贡赋岁进毛施布百匹。招讨司后改为军民都达鲁花赤总管府，又改为军民安抚司。三十一年，高丽王上言，耽罗之地，自祖宗以来臣属其国；林衍逆党既平之后，尹邦宝充招讨副使，以计求径隶朝廷，乞仍旧。帝曰：“此小事，可使还属高丽。”自是遂复隶高丽。

위의 글에 의하면 탐라는 고려의 속국(与国)이며, 세조(元世祖, 쿠빌라이 忽必烈)는 고려를 정복한 후에 탐라를 남송(南宋)과 일본을 공격할 해상 요충지(冲要)로 특히 주목하고 있다. 지원(至元)9년(1272년) 중서성(中书省)과 추밀원(樞密院)의 대신들이 토론하여 세조에게 건의한 바는 당시에 탐라에는 대몽항쟁을 벌이던 삼별초가 있으니 일본에 군사를 투입하기 전에 먼저 삼별초를 진압하고 나서 일본을 고려하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서성(中书省)은 원나라때 군주의 뜻대로 중요한 군국대사, 정책,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고, 추밀원은 군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지원10년(1273년)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하여 108척의 배를 동원하여 6월에 진압하고 나서 탐라국초토사(耽罗国招讨司)를 설치하고 군사 1,700명을 주둔시켰다. 이후에 초토사(招讨司)는 군민도다루하치총관부(军民都达鲁花赤总管府)로 바뀌고, 다시 군민안부사(军民安抚司)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원31년(1294년)에 쿠빌라이황제가 사망하자 탐라는 다시 고려에 속하게 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원에 복속되었다.

이러한 원간섭기 100여년간 몽골인들이 탐라에 정주하면서 제주와 몽골의 교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까지 의,식,주 분야에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이다. 제주언어 가운데 몽골어를 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한라산(옛이름 영주산瀛洲山), 돌하루방을 예로 하면 한라는 발음이 halla 몽골어 발음이 har(흑색이라는 뜻), 그리고 하루방은Harubang 몽골어로 십부장(十夫长, 병

사 10명을 이끄는 사람) 의 발음이 arubang 비슷하다. 이러한 언어학적 해석이 맞는 지 아닌 지 지금 계속 연구중이다.

몽골과 관련된 역사에서 우리는 700여년 전에 몽골인들이 이미 제주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IV. 머한의 해양 세력 이론 (Sea Power Theory)

미국의 군사평론가인 알프레드 사이어 머한(Alfred Thayer Mahan)은 “해양세력이론”을 제시하였는데, “해양세력(sea power)은 해양으로 하나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해양 세력은 해상군사력과 비군사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군사력은 함대, 그리고 해군 기지, 항구 등을 포함하고 비군사력은 해외 무역을 중심으로 해양과 관계있는 기관, 기관의 능력 등 모두 포함한다. 즉 한 나라의 해양에 관한 모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이다. 해양 세력은 한 나라의 해양을 이용하는 능력과 통제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한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머한의 대표적인〈The Influence of Sea Power History〉와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the French Revolution and Empire〉에서 해상 권력의 요건으로서 지리성, 자연구조, 영토, 인구, 국민성, 정부의 성격 등 6가지를 들었다.

첫째, 지리성이란 섬나라는 대륙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하려면 해양을 통해 세력,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사실상 섬이고 유럽대륙과 떨어져서 자기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륙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독특한 지리성으로 영국은 육군보다는 해군을 더 중요시하고 해양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더욱 전념하였다. 영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북쪽에만 바다가 있고 다른 삼면은 각각 폴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여러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독일이 해군 세력보다 육군이 먼저 발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육군 강대국인 독일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해군 강국인 영국, 미국

에게 완패 당했다.

둘째, 자연구조는 해양 세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라는 반드시 해안선과 물 깊은 항구와 같은 자연구조가 필요하다. 해안선은 한 나라의 해양 세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리적 기반이고 좋은 항구가 있어야 선박도 쉽게 다니기 때문에 해외식민지획득이나 무역을 잘 할 수 있다. 자연구조로 말하면 섬나라나 반도국이 오히려 대륙국가보다 더 우세를 가진다. 섬이나 반도국가가 땅이 좁고 토양이 척박하여 농산물 등이 적을 경우 그들은 생계를 위해 할 수 없이 바다로 진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토지가 척박한 그리스는 바로 하나의 예이다. 땅이 부족하고 민물까지 적은 그리스는 풍부한 해안선과 항구가 있어서 옛날부터 해양세력이 강한 국가가 되었다. 해안선을 활용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 하였던 것이다.

셋째, 영토는 한 나라의 기초이고 영토의 면적은 인구나 자원등이 서로 걸맞아야 한다고 한다. 즉 한 나라는 면적이 클 수록 인구나 면적에 따라 커져야 한다.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부족하면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반대로 약해지는 것이다. 1860년 미국 남북전쟁(The U.S Civil War)때로 말하면 미국 남쪽의 지방은 면적이 크고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었다. 당시에 남부인구는 910만이고 이 중에는 380만은 흑인인데 북부인구는 2234만이 된다. 남부의 땅이 크고 해안선도 길었으나 인구 부족의 약점으로 전쟁에 실패하였다.

넷째, 인구의 규모이다. 해권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사업을 종사할 인구가 필요하고 해군에 필요한 인구나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 세력이 강한 나라는 평상시에는 해양에 관한 무역이나 해운업을 중심으로 하고, 전시에는 무역이나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해군으로 신속히 바꿀 수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해양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인구나도 충분하고 이 중에서 해양사업에 종사할 인구나도 큰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다섯째, 해양세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성이 해외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갈망해야 한다. 즉 국민들이 바다에서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항운산업도 번창하게 발전할 수 있다.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강대국이 된 이유는 바로 자본을 점유한 자들이 해외에서 부를 추구한 때문이었다.

여섯째, 정부의 의식이다. 정부는 해양 의식이 있어야 하고 해군을 중요시 해야 한다. 포르투갈이 15세기부터 약600년동안 식민제국이 된 이유 중에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5세기에 “항해가 헨리”(Henry the navigator)왕자의 지도에 따라 포르투갈은 세계적으로 첫번째 식민제국이 된다.

머헨은 해외무역으로 입국한 나라는 반드시 해양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 세력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나라의 이익과 해외무역과 관계가 있는 해상수송로를 장악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국가의 강성과 번영의 주된 요소라고 하였다. 해양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는 국가적 정책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600년전부터, 즉 15세기초에 세계적인 대국이 하나 둘씩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등이 그들이다. 이런 대국은 모두 해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의 발전 과정은 상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면적이 9.2만km², 인구는 천만명인 포르투갈은 15세기에 인구는 백만밖에 안 되었다. 상규적인 발전과정에 의한다면 유럽에서 아주 일반적인 나라만 될 수 있지만, 1415년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세우타(Ciudad Autónoma de Ceuta)를 차지하고, 그 이후에 점점 전 세계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확장한 나라가 된다. 그때 포르투갈의 세력은 유럽부터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시아의 인도네시아까지 확장되었다.

포르투갈이 세력확장을 이룩한데 있어서 첫번째 이유는 건국한 후에 국내의 안정환경이다. 이베리아반도(포르투갈어: Península Ibérica)는 역사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라비아인들의 통제를 받았다. 기원후 711년에 아라비아사람들이 지브롤터해협(Strait of Gibraltar)으로 이베리아반도를 침입하자 반도의 주민들이 700년이나 긴 광복운동을 시작했다. 나라의 독립항쟁중에 포르투갈이 스페인에서 분열되고 1143년에 포르투갈왕인 아폰수왕은 스페인과 자모라 조약(Tratado de Zamora)을 맺고 자국의 독립을 인정받았다. 1297년에 스페인과 국경선을 확정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가 되었다.

두번째는 독립된 포르투갈은 삼면이 스페인 영토로 둘러싸여서 할 수 없이 해양방면

으로 발전을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아반도를 차지하고 그 중에 포르투갈은 직사각형의 국토로 서쪽에만 바다를 향하고 있고 대륙이 없어서 해외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은 국토면적이 작고 자원도 부족해서 해외자원을 찾는 모험정신과 종교신앙의 열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 여행가인 마르코폴로(Marco Polo)가 쓴 <동방견문록>은 유럽에서 유행했고 어떻게 동방에 가서 향료와 황금을 얻을 것인가는 당시 유럽사람들의 꿈이었다.

정부가 해외진출을 지지장려한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포르투갈의 발전에 따라 “항해가 헨리”도 유명해졌다. 바로 헨리왕자의 통솔, 지도로 이베리아반도의 약한 나라인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 포르투갈제국은 1415년에 세우타를 차지한 후에서 1999년에 마카오를 중국에게 반환할 때까지 거의 600년간 존속하였다.

17세기에 신흥국가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대신하여 세계적인 대국이 됐다. 스페인은 1648년에, 즉30년 전쟁 이후에 와서야 네덜란드의 완전독립이 승인되었다. 80년동안에 전쟁이 끝난 후에 건국된 네덜란드는 이전의 민족국가와 다른 것은 자본점유자들이 같이 연맹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은 이익을 갈망하고 국가는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변한다.

새롭게 세운 이 로우컨츄리(Low Country)인 네덜란드는 중국 베이징의 면적과 비슷하고 선박의 해외 진출이 성행하였으니 당시 네덜란드의 별명은 해상마부(Sea Coachman)였다. 네덜란드는 1602년에 동인도회사(The Dutch East India Company) 와 1621년에 서인도회사(The Dutch West India Company)를 각각 조직했다. 17세기는 네덜란드에게는 “황금세기(Golden Age)”이고 동인도회사로 동방의 향료를 유럽에 운수하고 신대륙 아메리카주에서 자원을 수탈했다. 17세기중반에 네덜란드의 해외무역은 전세계 무역총액의 50%나 차지했고 만 척이나되는 상선을 가졌다.

선박이 많아서 상품을 운수하고 상업이익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대출, 금융, 부기등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거나 완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 외에 은행을 만든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그 당시에 금융중심(International Finance Centre)이 되었다. 네덜란드의 경험은 세계적인 강국이라면 세

계 금융중심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 나라나 지역의 경제 상황은 면적 크기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V. 결 론

제주와 서울과의 거리는 452km, 제주와 부산간의 거리는 310km, 제주와 오사카(0)간은 989km, 제주와 중국상해간은 499km, 제주와 홍콩간은 1,030km이다. 즉 제주에서 출발하여 2시간안에 동아시아의 주요한 도시에는 다 도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중간적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좋은 위치는 다른 나라의 섬으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亦注意焉”했다.

한국은 반도국가지만 현재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한국도 섬인 셈이다. 그리고 수출지향적 국가로서 국가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 해외 운송은 거의 100% 제주도 남쪽의 해역을 지나간다. 만약에 제주도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제주도민들은 외부와 거래를 잘한 것을 보면 현대에 동북아시아 중심지에 위치한 제주도는 오래 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아름다운 인심까지 보유해서 관광명소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관광이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확장시켜 주변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공간적으로 협소한 시각은 결국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드넓은 바다라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제주도의 이익, 나아가 한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십주기〉

〈별주고씨가전〉

〈원사〉

〈고려사〉

〈The Influence of Sea Power History〉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the French Revolution and Empire〉

〈국제관계사〉

〈근현대국제관계사〉

〈포르투갈의 역사〉

〈네덜란드 역사〉

〈강대국의 출현(The rise of the great powers)〉시리즈

济州岛的重要性：作为东北亚海洋基点的济州岛

大部分人一提到济州岛，都知道它是个有名的观光圣地，但是它还有更多其他的重要性不为我们所知。济州岛有着悠久的历史文化：从传说的“三神人”时代开始，济州岛就开始了农耕和畜牧生活；济州岛的名称从“耽罗”到“济州”；民众的生活受到蒙古人的巨大影响，但是“耽罗精神”和美丽的民心却没有变化过。济州岛位于东北亚中心地带，在数百年前蒙古人就发现其重要的地缘政治性；根据美国的军事评论家马汉的主张，我们可以预测到到济州岛未来不仅是观光地，还应当会有更大的发展。

We all know that the Jeju Island is a beautiful sightseeing place, but it is of more significance than that. According to an interesting story—Three Gods, people on this island began to grow food, raise cattle and horses when they came here. In the long history, its name was changed from “Tamna” to Jeju”, and the Mongols had made great influence upon it. But the islanders never changed their “Tamna Spirit” and compassion. This island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Hundreds of years ago, people found its importance. Alfred Thayer Mahan, an military critic in USA, through his claim of “Sea power”, help us understand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this island.

关键词：

济州岛 耽罗精神 三神人 中心地 海权

1、绪 论

济州岛作为韩国最大的岛屿，以其优美的自然景观而被世人称为“世界新七大自然奇观之一”。美丽的济州岛不仅风景优美，还有着独特的历史与文化。在长期的历史进程中，济州岛曾建立过独立的王国，也曾被蒙古统治。但是不论是它独立时期还是

被统治时期，济州岛的独特地理位置和海洋性特点注定它成为重要的战略要地。根据古书的记载开始，济州岛民就开始在三韩和中国之间进行贸易往来，而今济州岛仍处于东北亚中心的位置，应该说济州岛可以发挥其除了观光旅游业之外更大的作用。

本文的结构是，第一部分讲解历史上的济州岛，通过第一部分的讲解我们可以知道济州岛正是得到了海洋的保护，得以保留了自己的独特历史文化，更保存了难能可贵的“耽罗精神”；第二部分是济州岛被蒙古占领时期，根据《元史》记载，忽必烈在征服高丽后，就选择了济州岛作为其南攻南宋和东进日本的桥头堡，通过蒙古人在济州岛的百年统治对该岛的各方面有着深刻影响，进而进一步强调了济州岛的重要性；第三部分主要讲解马汉的“海权论”，根据海权理论，我们可以比照历史上崛起的葡萄牙、荷兰等国得出一个结论，即近代以来的任何一个世界性强国都与海洋有着密切的关系，而世界性强国也并不是每一个都是人口众多、幅员辽阔。最后本文的结论归结到济州岛的海洋性发展上来，说明济州岛的地缘政治上的优越性和发展海洋产业的可行性。从而可以看出未来的济州岛是个有无限可能性的地区。

2、古代历史

从历史上看，济州岛古名有耽罗、岛夷、东瀛洲、涉罗、耽牟罗等。其中的“东瀛洲”之外全部是“岛国”的含义。瀛洲一词最早见于西汉东方朔的《十洲记》中，“瀛洲”也就是神仙居住的地方的意思。因为济州岛位于东方，所以被称为“东瀛洲”。根据韩国的《三国史记》记载，济州岛的历史开始于“三神人”的传说，高乙那、良乙那和夫乙那三个神人从汉拿山北侧的毛兴穴，也就是今天的三姓穴中冒出来，身穿兽皮，进行狩猎生活。后来他们和从东方“碧浪国”来的三位公主结婚，之后开始了种植五谷和畜养牛马的农耕生活。我们从这里可以看到，“三神人”时代实际是济州岛人从原始的狩猎生活转变为农耕生活的开始。

《星主高氏家传》根据此书记载，高乙那的后代三位兄弟，在新罗法兴王时代入朝新罗，并分别获得了“星主”、“王子”和“徒内”的称号，以及“耽罗”的国号。根据李氏

朝鲜的韩致渊的《东海绎史》，该书从中国和日本的史书中摘取540条而编成。韩致渊在《海东绎史》中解释说：东国方音(韩语)称“岛”为“剡”，称“国”为“罗罗”、“耽”、“涉”、“儋”皆为“剡”的谐音。所以上面提到，“耽罗”就是“岛国”的意思。从这里我们可以看到当时的济州岛和新罗有着密切的关系，济州在当时不仅从新罗得到官职名称，还得到了“耽罗”的国号。根据《高丽史 太祖世家》记载，统一新罗时代之后，耽罗太子末老在938年朝贡高丽，成为了高丽属国。在此后的1105年“耽罗国”改称“耽罗郡”。在高丽高宗时，改为今天的“济州”，济的含义是“渡、过河”的意思，州则是行政区划。济州岛从“耽罗”转变到“济州”，我们可以一窥济州岛和当时半岛政权的关系开始发生质的变化，成为了直属的统治区域。1273年济州被当时的蒙古人建立的元朝所统治，并于该年设立达鲁花赤。第二年，也就是1274年又设立了耽罗军民总管府。蒙古人认为济州岛温度适宜，牧草丰富，非常适合放牧。所以在济州岛开始了繁殖蒙古马和济州本土马匹。直到1294年忽必烈病死后元朝才重新将济州岛交还给高丽。从上面到这里只是济州岛悠久历史的一个简述，还有很多不充分的地方。

济州岛如同西方的英国一样，和大陆分离保证了自己的独立性和独特性，并因此创造了自己特有的文化，因此我们今天能够感受济州岛不同于韩国的异国风情。我们所知道的，济州岛除了有“三多三少”岛的称呼外，还被称为“三丽岛”。从根本上说，济州岛最美的不是风景而是人心，如果人心不美那么就没有济州岛的“耽罗精神”和世界知名的观光胜地了。

根据中国陈寿的《三国志 东夷传》第一次记录了济州岛。“又有州胡在马韩之西海中大岛上，其人差短小，言语不与韩同，皆髡头如鲜卑，但衣韦，好养牛及猪。其衣有上无下，略如裸势。乘船往来，市买韩中。”文中记录了当时被称为州胡的人生活在“大岛”上，与当时的三韩、中国进行贸易。

3、蒙古入侵时期

耽罗，高丽与国也。世祖既臣服高丽，以耽罗为南宋、日本冲要，亦注意焉。至元六年七月，遣明威将军都统领脱脱儿、武德将军统领王国昌、武略将军副统领刘杰往

视耽罗等处道路，诏高丽国王王禘选官导送。时高丽叛贼林衍者，有余党金通精遁入耽罗。九年，中书省臣及枢密院臣议曰：“若先有事日本，未见其逆顺之情。恐有后辞，可先平耽罗，然后观日本后否，徐议其事。且耽罗国王尝来朝觐，今叛贼逐其主，据其城以乱，举兵讨之，义所先也。”十年正月，命经略使忻都、史枢及洪茶丘等率捕船大小百有八艘，讨耽罗贼党。六月，平之，于其地立耽罗国招讨司，屯镇边军千七百人。其贡赋岁进毛施布百匹。招讨司后改为军民都达鲁花赤总管府，又改为军民安抚司。三十一年，高丽王上言，耽罗之地，自祖宗以来臣属其国；林衍逆党既平之后，尹邦宝充招讨副使，以计求径隶朝廷，乞仍旧。帝曰：“此小事，可使还属高丽。”自是遂复隶高丽。

这是元史中有关于济州（耽罗）的记载，文中提到“耽罗，高丽与国也。”说明当时的济州是高丽国的属国。而第二句，“世祖既臣服高丽，以耽罗为南宋、日本冲要，亦注意焉。”从这里我们就可以看到当时的元世祖忽必烈已经发现了济州的重要位置，可以南攻南宋和东进日本的最佳地点。至元9年（1272年）忽必烈与中书省、枢密院的大臣商议，因当时的三别抄占据耽罗（济州），成为忽必烈“有事日本”的障碍。所以在第二年，至元10年（1273年）世祖派遣“捕船大小百有八艘，讨耽罗贼党”，并且“六月，平之”后在耽罗设立了耽罗国招讨司，并驻兵一千七百人。此后招讨司改为了军民都达鲁花赤总管府，后又改为军民安抚司。在1294年高丽的请求下，“自是遂复隶高丽”。

蒙古人在耽罗的长期生活对济州岛民众的衣、食、住、行等产生了巨大影响，其中之一就是语言。我们以汉拿山(한라산)、图哈鲁邦(돌하루방)为例，汉拿的英语发音为halla，而蒙语“黑色”的发音为har；另外的图哈鲁邦中哈鲁邦harubang和蒙语“十夫长”的发音arubang的发音也很近似，这些内容不是本文主要内容，在后续论文中将就此类语言问题进一步研究。

从上面的历史记录中我们可以看到，在700余年前，蒙古人已经注意到济州岛的重要位置和作用。

4、马汉的海权论(Sea Power Theory)

阿尔弗雷德·赛耶·马汉(Alfred Thayer Mahan)作为美国的军事评论家提出了“海权论”，并指出海权就是用海洋让一个民族成为伟大民族。海权包括了一个国家中海上军事力量和非军事力量，海上军事力量涵盖了一国军事舰队、海军基地和港口等；非军事力量则包含了以海外贸易为中心的，一个国家所有与海洋相关的机构及其行政能力。也就是说，海权就是一个国家与海洋相关的所有软实力和硬实力的综合。海权既是体现一国利用海洋和控制海洋的能力，也是决定一国实力的重要要素。

马汉在其代表作中提出《海权对历史的影响》，《海权对法国革命及帝国的影响，1793-1812》等，海上权力的构成要素包括地理性、自然构造、国土、人口、国民性和政府导向等。

从地理性上来说，岛国或半岛国家因为没有大陆作为保护，如果想要保护自己，就只有向海洋扩张自己的势力和领土。例如英国，远离欧洲大陆保证了它的独立性，但也使得它入侵大陆成为了困难。因此这样的独特地形使得英国更重视海军建设而不是陆军。和英国相对的，德国就是一个典型，德国除北边国界与海洋接壤外，其他三面分别和波兰、奥地利、法国、丹麦等多国相邻。这样的地理位置导致其必然首先重视陆军的建设和发展，而不是海军。这也是为什么陆军强大的德国在第一次、第二次世界大战中败给海军强国英美的原因。

自然构造上，试图发展海权的国家都一定要有海岸线和优良的深水港。海岸线是一个国家海洋实力发展的基础，优良港口可以保证军舰商船的自由停泊和往来。从这方面来说，半岛国家和岛国反而更具有优势。狭窄的国土，不足的农产品使得民众不得不选择海洋。土地贫瘠的希腊就是一个例子，不仅土地不足，甚至于淡水都缺乏的希腊凭借优良的海岸线和港口从古代开始就成为了海上强国。

国土是一个国家的立国基础，国土面积应该和人口、资源等互为比例，均衡发展。也就是说一个国家的领土越大，人口也要随之增加。否则，人口不足则无法很好的保护自己的国土。以南北战争(The U.S Civil War)时期的美国为例，1860年左右的美国南方人口仅为910万，其中还有380万的黑人；反观北方人口则是2234万。南方土

地广袤，海岸线绵长，但人口不足的劣势成为南方战败的重要原因。

从事海洋事业的从业人口是必须的，这样才能给海军提供充足的兵员。海权国家平时进行和海洋相关的贸易与其他产业，战争爆发的时候则可以迅速将从事海洋事业的人员转变成海军力量，从而增加战争胜利的可能性。因此如果想发展海权，则必须有充足的人口，其中从事海洋事业的人口要占有重要的比例。

国民性方面，指的是民众渴望通过海外贸易获得利益。一个国家的民众如果希望从海洋上获得利益，就会使海上贸易的迅速发展繁荣。荷兰在17世纪成为海上强国的理由就是国家建立者是资本占有者，他们都渴望并希望获得海外利益。

政府要有海洋意识，并重视海军发展。葡萄牙从15世纪开始大约持续了600年的殖民帝国时期，这其中政府起到了极大的引导作用。在“航海家亨利”(Henry the navigator)王子的指导和帮助下，葡萄牙开始了世界第一个殖民帝国的征程。这在下文有更详细的论述。

马汉强调海外贸易立国的国家一定要掌握海洋，并且控制了与该国有利益、海外贸易相关的海上运输线关乎国家的强盛和繁荣。

自600年前开始，即15世纪初开始，世界性的大国逐渐登上历史舞台。葡萄牙、西班牙、荷兰、英国、法国、俄国、德国、美国、日本等就是其中的代表。而这些大国的强大都和海洋有着密切的关系。

历史的发展常常是非常规的。现在面积9.2万平方公里，人口不过千万的葡萄牙在15世纪时人口才100万左右，如果按照常规的发展，它最多成为一个普通的二流国家，但是自1415年占据了北非的休达(Ciudad Autónoma de Ceuta)后，开始逐渐扩张为世界上第一个海外殖民国家，其势力从欧洲扩大到美洲的巴西，亚洲的印度尼西亚。

葡萄牙之所以能成为第一个世界性殖民国家，首先得益于建国后国内政局稳定，历史上的伊比利亚半岛曾受到信仰伊斯兰教的阿拉伯人的统治，自711年阿拉伯人通过直布罗陀海峡进入半岛后，半岛居民就开始了长达700年的光复运动，光复运动中，葡萄牙从西班牙中分裂出来，1143年当时的葡萄牙国王阿方索和西班牙王国签订《萨莫拉条约》，宣布自己的独立。并且葡萄牙在1297年最终和西班牙明确国界，成为当时欧洲最早的具有民族意识的国家。

其次，独立后的葡萄牙，三面被西班牙领土包围，所以不得不向海洋发展。陆地上西班牙和葡萄牙占据了伊比利亚半岛，而葡萄牙的国土成长方形，除了西面临海外，其他三面都和西班牙接壤，没有广大的内陆作为依靠，向海外发展成为葡萄牙的必须选择。

第三，此外葡萄牙狭小的国土面积上资源不足，为了获得海外财富的冒险精神和宗教的热情在当时很是流行，自从马可波罗游记流行于欧洲开始，如何到达富裕的东方获得香料和黄金成为每个欧洲人的梦想。

最后，当时葡萄牙政府的支持是其崛起的必要条件。伴随着葡萄牙崛起的是历史上有名的“航海家亨利”。正是亨利王子的亲自指导和带领下，葡萄牙才从伊比利亚半岛上的弱小国家转变成世界强国。葡萄牙的殖民帝国时期从1415年攻占休达开始，直到1999年将葡属澳门归还中国为止，几乎经历了600年时间。

17世纪开始的新兴国家荷兰，取代了曾经的海上强国葡萄牙和西班牙。西班牙直到1648年，也就是“三十年战争”后才承认了荷兰的独立。在经历了80年战火洗礼后成立的这个国家，不同于以往的民族国家，荷兰更多的是利益和价值观上的认同，这个新兴国家是由资本占有者建立起了的国家。这样的国家其民族性追逐利益，国家成为其追逐利益的工具。

刚刚独立的荷兰国土面积和北京差不多大，但是面朝大海的“低地国家”荷兰在独立后的船舶航运业盛行，荷兰因此获得了“海上马车夫”的外号。荷兰先后建立起了荷属东印度公司（1602年）和荷属西印度公司（1621年，在17世纪荷兰发展的“黄金世纪”里，荷兰控制了当时东方香料等贸易，并在当时的美洲新大陆进行殖民掠夺。到了17世纪中叶，荷兰的海外贸易占了全世界贸易额的一半，荷兰当时拥有的商船达到1万只。

荷兰通过航运业，运输商品获得丰厚的商业利益。随着商业的发展，现代意义上的租赁、金融和簿记等都是由荷兰人发明或完善的。另外荷兰人的一个重要发明是组建了银行，历史上从而奠定了阿姆斯特丹当时的欧洲金融中心地位。荷兰的经历表明，要成为世界性强国，则必须进行海外扩张和海外贸易，同时要拥有世界金融中心的地位。

我们从葡萄牙和荷兰的经历也可以看到，一个国家或地区的经济实力和面积的大小不是成正比例的。

5、结 论

济州岛成东西73千米，南北31千米的椭圆形，面积大致1832平方公里。位于韩国南侧，与首尔的距离为452千米，釜山310千米，大阪989千米，上海499千米，香港1030千米，在2个小时以内航空可以到达东北亚主要大中城市。这样优越的地理位置是其他国家的岛屿所罕有的。这也是当年元世祖忽必烈“亦注意焉”的事情。

因为三八线的分割，现在的韩国也可以说是一个岛。作为以进出口贸易立国的国家，韩国几乎海外运输的100%要经过济州岛附件海域。换句话说，如果济州岛周边出现事故，则韩国贸易会受到巨大影响。

旅游业很容易受到邻国和本国政策，以及该地区自身安全等的影响。历史上，作为“州胡”的济州岛民曾经“市买韩中”，面向大海往来于中日等国之间进行海外贸易。因此位于东北亚中心地区，拥有悠久历史和文化的济州岛应该发挥更大的作用。

[参考文献]

- 《三国史记》
- 《十洲记》
- 《星主高氏家传》
- 《元史》
- 《高丽史》
- 《海权对历史的影响》
- 《海权对法国革命及帝国的影响, 1793-1812》
- 《国际关系史》
- 《近现代国际关系史》
- 《葡萄牙简史》
- 《荷兰史》
- 《大国崛起》系列丛书